特 輯

간추린 韓國의 시멘트 産業史

Ⅰ. 序　　言

우리나라 시멘트 産業은 비록 日本人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1919 년 最初로 시멘트 工場이 세워진 이래 64 년, 사람으로 말하면 還甲을 지난 年輪을 쌓았다.

이 60 여년에 걸친 우리나라 시멘트 産業의 歷程과 그 浮沈의 뒤안길을 • 光復前 • 1945 ~1961 년(5·16 以前) • 1962~1971 년 (初期 産業化단계) • 1972~1982 년(高度成長期) 의 4 段階로 大分·壓縮하여 一瞥해보고자 한다.

여기 引用된 資料 중 특히 60 년대 이전의 것은 未確認, 不確實한 것이 많으며 그 이후의 資料도 基準에 따라 差異가 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讀者諸賢의 理解와 鞭撻을 바란다.

Ⅱ. 光復前 (　　~ 1945)

1. 槪　況

이 時期의 우리나라는 政治的으로는 日本의 支配下에 놓였던 暗黑期였으며 시멘트 産業史的으로는 胎動期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最初의 시멘트 工場은 日本 小野田 시멘트(株) 가 平壤近郊의 江東郡 勝湖邑 勝湖里에 세운 勝湖里工場이다. 이 工場은 濕式 키른 1 基, 年産能力 6 만톤 規模의 것으로 1917 년 6 월에 着工, 3·1 獨立運動이 일어난 1919 년 12 월에 竣工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을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시멘트 需給에 관해 지금까지 最初의 公式記錄으로 確認된 「第 3 次 統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1904 년에 8,104 톤 (시멘트와 石灰의 合計)을 輸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仁川과 鷺梁津間을 잇는 京仁鐵道가 1899 년 9 월에, 京義線이 1906 년 4 월에 각각 開通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시멘트 소비는 1900 년대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무렵의 時代的 背景을 보면 日本은 淸·日戰爭(1894. 8~1895. 4), 露·日戰爭(1904. 2 ~ 1905. 10)의 勝利에 힘입어 大陸進出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韓國侵略을 本格化하기에 이른다. 이에 우리나라는 1905 년의 韓·日協約(乙巳保護條約)에 이어 1910 년의 韓·日合邦으로 政治·外交權은 물론 經濟權마저 日本에 隷屬됨으로써 亡國의 설움을 되씹어야 했던 暗黑期였다.

시멘트 産業史的으로 日本은 1887 년까지 獨逸의 시멘트 技術者를 招聘하였고 1903 년까지도 美國에서 키른을 導入하는 수준에 不過했지만 淸·日戰爭, 露·日戰爭과 第 1 次世界大戰을 겪는 동안 軍需産業으로서의 시멘트 産業은 好景氣를 누려 急速한 發展을 이룩한다.

2. 生産施設

우리나라 시멘트 工場은 1919 년에 처음 竣工된 勝湖里工場에 이어 光復前까지 3 社·6 工

場·키른 17 基·年産能力 180 만톤의 施設規模를 갖추었다.

勝湖里工場은 4만坪의 工場敷地와 原燃料調達이 容易한 立地條件을 具備, 黃海道와 平南北市場을 염두에 두고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工場은 1次로 21년 2월에 8만톤, 2次로 28년 2월에 8만톤, 3次로 36년 1월에 8만톤을 각각 增設, 年間生産能力이 30만톤에 이르렀다.

한편 日本小野田시멘트(株)는 韓國內에서의 事業을 擴大하고 咸南北市場과 間島, 滿洲 등지에로의 進出을 위해 1928년 1월 咸南 文川郡 川內邑 川內里에 年産 13만톤 規模의 生産工場을 新設하였으며 36년 경에는 키른 1基를 增設, 生産能力을 倍加시켰다.

1930년대를 前後하여 日本의 시멘트 生産은 過剩現象을 보여 日本內에서는 시멘트 工場의 新·增設이 抑制된 바 시멘트業者들은 韓國과 滿洲 등지에서 그 活路를 모색하였다. 그 代表的인 경우가 日本小野田社의 川內里工場 新·增設과 勝湖里工場의 2·3次增設이며 1936년 2월 宇部시멘트(株) 系의 朝鮮시멘트(株)가 黃海道 海州에 세운 馬洞工場, 같은 해 6월 朝鮮小野田시멘트(株)가 咸北 富寧郡에 세운 古茂山工場과 1937년 11월 朝鮮淺野시멘트(株)가 黃海道 鳳山에 세운 鳳山工場 등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馬洞工場은 키른 4基에 年産能力 36만톤, 古茂山工場은 키른 2基에 年産能力 34 만톤이었으며 鳳山工場은 當初 키른 2基에 年産能力 18만톤이었으나 그 후 日本 佐伯工場에서 키른 2基를 移設, 生産能力이 36만톤으로 倍加되었다.

이밖에 朝鮮小野田社가 1942년 6월 江原道 三陟郡에 키른 1基 年産能力 18 만톤 規模의 工場을 세운 바 日本人이 우리나라에 세운 시멘트 工場 중 이 工場이 南韓에 세운 유일한 것이다.

3. 시멘트 需給

20세기초 우리나라 시멘트 소비는 所要 全量을 輸入에 依存한 바 1904년의 8,104 톤에서 약간의 起伏은 있으나 꾸준히 增加하여 1917년에는 5만톤을 넘어섰다. 勝湖里工場이 本格的으로 稼動된 1920년부터는 生産과 消費가 다같이 상당한 幅으로 增加하여 日本關東大震災가 발생한 1923년에는 소비가 10만톤을 넘어섰고 1925년에는 國內生産도 10만톤을 突破했으며 1935년에는 소비가, 1936년에는 생산이 각각 50만톤線을 넘었다. 이무렵 상당량의 輸出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生産規模로 미루어 볼때 內需시멘트는 國內生産만으로도 充足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輸入으로 充當하였다. 이는 原料供給·燃料效率面에서 오늘날처럼 높은 稼動率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이미 韓國에 進出한 日本 시멘트業界의 강력한 旣得權 행사로 小野田社가 韓國에서 生産을 獨占하고 있으면서도 市場까지는 獨占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한편 第2次世界大戰의 戰雲이 감돌던 1936~38년간에는 生産과 消費가 모두 60~70 만톤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大戰이 발발한 1939년부터는 戰時體制下에서의 統制 때문이었는지 需給關係資料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1955년에 발간된 韓國産業銀行資料에 의하면 1944년의 시멘트 生産은 100 만톤, 소비는 77만톤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光復前의 輸出推移를 보면 1920년 2.3 만톤을 嚆矢로 하여 매년 輸入의 약 절반 수준을 유지했으며 1924년에는 關東大震災復舊事業에 힘입은 탓인지 5.4 만톤으로 增加했다가 그 후 數年 동안 다시 2만톤線으로 떨어졌다. 1935년에는 처음으로 輸出이 10 만톤대를 突破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1939년까지는 10~80 만톤 수준을 유지한 바 이의 70~80 %는 日本으로, 그 나머지는 關東州와 滿洲 등으로 輸出되었다.

4. 시멘트 價格

이 時期의 시멘트 價格은 輸出入價格을 뜻하며 單位는 톤當 円(¥)이다. 이 價格은 全體輸出入物量과 金額을 근거로 한 것이며 物量單位는 樽(약 170 kg), 斤 또는 톤으로 表示된 것

을 모두 톤으로 統一 換算한 것이다. 1904～1907 년간에는 톤當 시멘트 輸入價格이 19～29 円으로 年度에 따라 상당한 起伏을 보이고 있는 바 이 時期는 시멘트와 石灰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資料의 未洽에도 한 原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1908～1913 년간은 톤當 輸入價格이 23～25 円으로 安定되었다가 1914～1916 년간에는 15～17 円으로 大幅 下落되는데 이무렵부터 日本의 시멘트 業界가 生産過剩狀態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7～1929 년간에는 輸入價格이 톤當 29～44～55 円의 큰 起伏을 보이면서 다시 大幅 上昇하였다. 특히 이무렵 日本內의 過剩生産과 1920 년부터는 國內의 勝湖里工場이 本格的으로 稼動되었음에도 이처럼 輸入價格이 大幅 上昇한 原因은 당시 우리나라에 시멘트 供給을 맡고 있던 小野田, 淺野, 宇部 등 6個社가 強力한 共販協定을 맺고 談合에 의한 利權을 철저히 획책했기 때문이다. 1930 년부터는 다시 21～25 円線으로 下落, 安定勢를 유지하면서 1939 년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이후 第2次世界大戰이 발발하면서부터는 다른 資料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價格 역시 추적할 길이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20 년부터 輸出이 시작되었으나 1928 년 이전의 價格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무렵의 輸出價格에 관한 資料는 輸入의 그것보다 더 不正確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1929 년 이후의 價格推移는 20～30 円을 나타내주고 있어 同年代의 輸入價格과 비슷한 水準임을 알 수 있다.

Ⅲ. 光復～1961 년

1. 概 況

1945 년의 光復이 우리 民族에게 안겨준 희망과 기쁨은 잠시뿐, 思想的 對立으로 인한 民族의 分裂과 國土의 分斷, 갑작스러운 經濟秩序의 단절 등으로 이 民族은 過渡期的 混亂과 陳痛을 겪어야만 하였으니 시멘트 産業 역시 例外일 수는 없었다.

光復後 南韓에 남은 시멘트 工場은 三陟工場 하나뿐인데다 이것마저 50 년대중반까지는 제대로 稼動되지 못한 유야무야의 상태였다. 1950 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三陟工場이 稼動되고 聞慶工場이 新設되는 등 우리나라 시멘트 産業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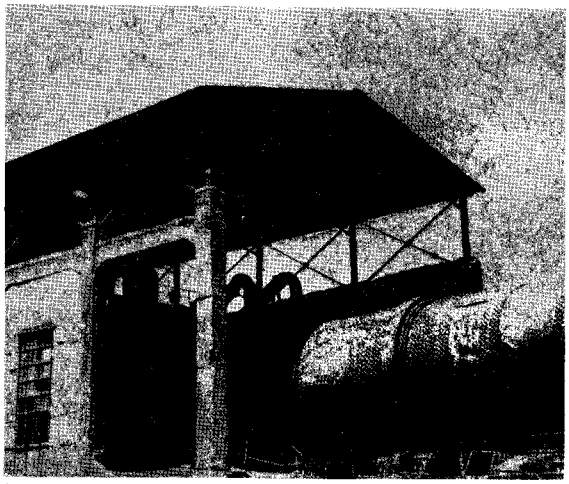
2. 生産施設

東洋세멘트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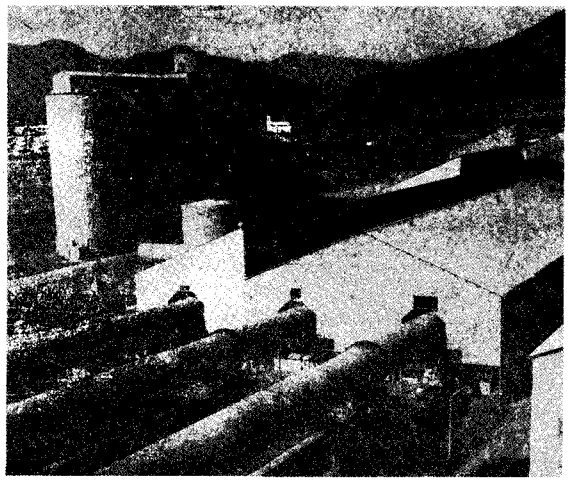
光復時 우리나라의 6個 시멘트 工場중 南韓에 남은 것은 三陟工場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 工場마저 光復前의 무리한 稼動으로 機械設備의 故障, 技術人力의 不足, 電氣·燃料難 등이 겹쳐 거의 運休狀態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 工場은 1946 년 9 월 政府管理企業體인 三陟세멘트製造公社로 發足, 1949 년부터 서서히 생산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으며 1950 년 4 월 大補修에 着手하였으나 뜻밖의 6·25 動亂으로 또다시 試鍊을 맞았다. 그 후 1953 년 政府는 UNKRA 資金과 韓國銀行 融資로 이 工場 再建에 나섰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同年 8 월 民間人에게 이를 公賣하였다. 이렇게 하여 三陟세멘트製造公社는 1956 년 1 월 三陟세멘트(株)로 民營化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勞使紛糾, 施設機資材의 老朽 등으로 工場運營이 여의치 못해 결국 동년 12 월에는 東洋製糖工業(株)에서 이를 引受함으로써 오늘의 東洋세멘트(株)로 새로운 出發을 하게 되었다. 正常軌道를 되찾은 三陟工場은 1959 년 1～4 월 大補修에 成功, 18 만톤의 年産能力을 되살렸으며 1961 년 9 월에는 키른 1 基 增設工事를 完工함으로써 年産 36 만톤의 生産能力을 갖게 되었다.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

한편 政府는 6·25 動亂後 復興事業으로 인한 시멘트 需要增大에 對備, 또다른 시멘트 工場의 건설을 推進한 바 이것이 1955년 11월에 着工을 본 聞慶工場이다. 이 工場은 建設 중 1956 년 12 월 大韓洋灰工業(株)로 運營權이 引繼되어 1957 년 9 월 키른 2 基에 年産能力 24 만톤



三陟세멘트(株)때의 三陟工場모습



大韓洋灰 聞慶工場

으로 竣工되었으며 1961 년 1 월 다시 키른 1 基를 增設, 總 36 만톤으로 늘어났는데 國內에서는 유일한 濕式工程이다. 이 회사는 1975 년 1 월 雙龍으로 合併된다.

3. 시멘트 需給

1939～1957 년간의 시멘트 需給實績은 매우 회의적이다. 이 時期는 第 2 次世界大戰, 光復과 國土의 分斷, 6·25 動亂 등 時代的 背景自體가 混亂期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統計가 대단히 不確實하다. 同一한 內容, 同一한 資料인데도 앞뒤가 서로 달라 基準을 정하기 조차 어렵다.

光復後 1950 년까지의 시멘트 消費는 보잘것 없지만 6·25 動亂後 戰災復舊에 들어간 1952 년부터는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57 년 9 월까지의 生産施設은 三陟工場 하나뿐인데다 圓滑한 稼動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량을 輸入에 依存하였다. 특히 1957 년에는 輸入이 生産의 2 倍를 넘고 있으며 1958 년에는 聞慶工場의 本格稼動으로 生産이 前年의 3 倍 가까이 增加했음에도 輸入量은 全體生産量의 1.2 倍나 되었다.

이처럼 1950 년대 후반부터는 시멘트 工場을 新·增設했음에도 生産이 消費增加를 따르지 못한데다 1961 년 5·16 革命後 經濟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시멘트 消費增加는 더욱 격증할 것이 예상되어 또다른 시멘트 工場建設을 緊急히 計劃하지 않으면 안될 段階에 이르렀다.

4. 시멘트 價格

1954 년 이전의 시멘트 價格은 알 수 없으며 1955～1962 년간의 生産者販賣價格(工場渡價格)은 1960 년 한해를 除外하고는 거의 變動이 없는 安定된 수준을 유지했다. 反面 同期間의 市場都賣價格은 상당한 起伏을 보여 都賣差益은 최저 461 원에서 1,531 원으로 3 倍 이상의 差를 나타낸 경우도 있으며 都賣差益이 生産者販賣價格의 半을 넘고 있는 해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무렵 총소비의 9～67 %를 輸入에 依存하였으며 輸入比率이 높은 해일수록 都賣差益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需給不均衡 때문인 것 같다. 또한 1958, 59, 60 년의 톤당 시멘트 輸入價格은 각각 $ 21.16, $ 25.39, $ 19.82 로 나타났다.

이무렵의 시멘트 包裝單位는 袋當 50 kg → 45 kg → 42 kg 으로 바뀌었다가 1961 년 8 월 ASTM 規格인 42.638 kg 으로 다시 變更되었다.

Ⅳ. 1962～1971 년

1. 概　況

이 期間은 第 1·2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 期間

으로서 오늘의 우리나라 經濟基盤을 구축한 産業化 初創期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멘트 産業은 國家基幹産業으로서뿐 아니라 經濟開發의 基礎 戰略産業으로 選定되어 이 期間 중 어느 業種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다. 이를 數字로 살펴보면 1961년 73만톤에 불과했던 生産能力은 1971년까지 9.5倍가 늘어난 692만톤에 달했으며 同期間중 시멘트 生産은 51만톤에서 13.5倍가 증가된 687만톤에 달해 1971년도에는 世界 第20位의 시멘트 生産國으로 浮上했다. 또한 지금까지 만성적인 시멘트 輸入國에서 이 期間 중 輸出國으로 轉換, 1971년에는 94만톤을 輸出함으로써 터키 다음인 世界 第11位의 시멘트 輸出國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시멘트 産業은 이 期間 중 量的膨脹에 따라 消費地 仲介基地로서 粉碎工場, 包裝工場, 레미콘工場 등 流通施設을 늘려갔으며 技術的인 面에서도 1960년대초의 施設導入에 따른 技術導入, 技術習得過程을 겪으면서 急進的인 進展을 보여 1960년대 後半부터는 自體的인 技術開發水準에까지 到達함으로써 施設改造를 통한 生産性向上, 品質改善은 물론 시멘트 技術의 海外進出을 위한 基盤을 구축한다.

이같은 高度成長에 比例하여 經營·資金·需給 流通·輸送·價格 등 多方面에서 隘路事項과 副作用이 발생한 바 1971년 大韓의 運營權移讓, 東洋의 法定管理申請 등은 이 期間 중 業界가 共同으로 겪어야 했던 시멘트 産業受難史의 代表的 斷面이기도 하다.

이러한 渦中에서 1963년 7월 시멘트業界 團結의 求心點으로 韓國洋灰工業協會가 탄생하였으며 業界가 어려움에 處할 때마다 그에 對處하기 위한 共販·輸出 窓口一元化·運送機構 등이 明滅하였다.

2. 生産施設

5·16革命後 經濟開發의 加速化에 힘입어 시멘트 消費는 可히 폭발적이었다. 이에 따라 政府當局에서는 第1·2次經濟開發5個年計劃期間 중 시멘트 産業을 戰略産業으로 指定하고 生産施設의 新·增設에 박차를 加했다. 이 期間 중 시멘트 工場은 旣存 2個工場外에 7個工場(白시멘트 1個工場包含)이 新設·稼動되었고 1個工場이 더 建設 중이었으며 稼動 중인 키른數만도 5基에서 21基로, 生産能力은 73만톤에서 692만톤으로 增加되었다. 한편 이에 所要된 資金만도 外資 약 1억3천여만불, 內資 약 200여억원에 달한 바 社別로 施設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洋세멘트工業株式會社

東洋은 三陟工場에 SP 키른 1基를 增設함으로써 키른 3基에 年産能力 94만톤 規模를 갖추었다. 이 增設工事는 약259만불의 外資와 약 6억원의 內資를 投入하여 1966년 1월에 着工, 1년여만인 1967년 4월에 竣工되었다.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

大韓은 聞慶工場에 1967년 10월~1968년 8월 중 外資 120만불과 內資 2.1억원을 投入, 年産能力 14만톤의 濕式 키른 1基를 增設함으로써 키른 4基, 年産能力 49만톤의 生産施設을 갖추었다.

한편 이 會社는 1971년 8월 그 運營權이 元豊産業(株)로 넘어갔다.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事業 중 第6 시멘트로 計劃된 雙龍시멘트는 1962년 5월 雙龍洋灰工業(株)를 設立하고 同年 9월 生産能力 41만톤 規模의 工場을 江原道 寧越에 着工, 1964년 4월 稼動하였다. SP키른 2基로 建設된 이 工場은 當初計劃段階에서는 늦었지만 旣存 2個工場 다음으로 시멘트業界 第3走者로 등장하였다. 雙龍은 이 期間 중 新·增設을 단행, 寧越에 年産能力 34만톤의 SP키른 1基를 增設, 1967년 10월부터 稼動시켰으며 거의 같은 期間에 江原道 三陟郡 北坪邑에 SP 키른 2基, 年産能力 173만톤 規模의 東海工場을 建設 稼動함으로써 總規模 248만톤의 生産施設을 보유하게 됐다.

雙龍은 1970년 1월 雙龍工場을 寧越工場으로 名稱을 바꾸고 同年 10월 2次增設을 단행

1972년 6월 SP키른 2基를 追加로 稼動함으로써 이 會社의 年間總生産能力은 350만톤으로 늘어난다.

韓一시멘트工業株式會社

1961년 12월 設立된 韓一은 1962년 1월 第4시멘트의 事業主體로 選定되어 忠北 丹陽郡 梅浦面 友德里에 半乾式 Lepol 키른 2基, 年産能力 41만톤 規模의 工場을 1962년 11월에 着工, 1964년 6월에 完工하였다.

韓一은 1967년 5~7월 중 키른 2基의 know-how工事를 통해 年産能力 10만톤을 追加하고 1968년 3월~1969년 10월 중 年産能力 51만톤의 SP 키른 1基를 증설함으로써 總規模 102만톤의 生産施設을 갖추게 된다.

韓一은 創立時부터 시멘트 代理店을 經營하던 20名의 共同出資로 出發하여 시멘트業界 最初의 公開法人이 되었다.

現代시멘트株式會社

第1次經濟開發計劃上 第3시멘트의 事業主體로 選定된 現代建設(株)은 忠北 丹陽郡 梅浦面 高陽里에 半乾式 Lepol 키른 1基, 年産能力 20만톤 規模의 工場을 1963년 6월 新規로 着工, 1년만인 1964년 7월에 竣工하였다. 이 工場은 본래 現代建設이 필요로 하는 시멘트를 自體供給할 目的下에 小規模工場으로 시작하였으나 1968년 12월 SP 키른 1基를 增設·稼動함으로써 總生産能力이 46만톤으로 늘어났다.

現代는 當初 國內시멘트業界에서는 유일하게 現代建設(株)의 1個部署로 出發하였으나 1970년 1월부터 別途法人體로 獨立하였다.

忠北시멘트工業株式會社

經濟開發計劃上 第5시멘트는 慶源産業(株)가 事業主體로 確定되었다. 慶源은 忠北 堤川에 Lepol 키른 2基, 年産能力 41만톤 規模의 工場을 1965년 4월에 着工, 다음 해 12월 竣工하였으며 1965년 6월 會社名稱을 忠北시멘트工業(株)로 변경했다.

星信化學株式會社

1967년 3월에 設立된 星信化學(株)는 同年 12월 忠北 丹陽郡 梅浦面 梅浦里에 SP 키른 2基, 年産能力 102만톤 規模의 工場을 新規로 着工, 1969년 12월에 完工했다.

유니온白洋灰工業株式會社

1964년 1월, 韓美合作으로 설립된 유니온白洋灰工業(株)는 同年 9월 京畿道 富川市 遠美洞에 國內 唯一의 白시멘트공장을 竣工했다.

이 공장은 키른 1基(年産 1.5만톤)로 시작하여 1971년 同一규모의 키른 1基를 增設함으로써 年産能力이 모두 3만톤으로 倍加되었다.

3. 시멘트 需給

1962~1971년중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은 量的·外型的으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世界的인 시멘트 生産國으로까지 發展했지만 단기적으로는 需給不均衡의 반복으로 인한 수난의 연속이었다. 5·16혁명후 제1차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62년에는 전해에 이미 增設공사를 完了한 東洋·大韓이 증산체제를 갖추고 전년비 54% 증산된 79만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消費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 98만톤(전년비 171%)에 달함으로써 심각한 공급부족현상을 들어내 18만톤이나 수입에 依存하게 된다.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설립된 1963년에는 생산이 담보상태인데 비해 消費는 사상 처음 100만톤선을 넘어서면서 品貴·價格앙등현상을 초래, 소위 밀가루, 설탕과 함께 三粉파동을 일으켰으며 수입은 전년보다 10만톤이 늘어난 28만톤에 달했다.

1964년에는 4월에 雙龍영월공장, 6월에 韓一, 7월에 現代의 신설공장 등이 차례로 稼動된데 따라 연간 73만톤의 生産能力이 一時에 175만톤으로 증대되면서 生産도 처음으로 100만톤 수준을 넘은 124만톤에 이르러 오히려 연간 50~60만톤의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 과당판매경쟁 등의 부작용을 빚는다. 이에 시멘트業界는 共同販賣·輸送의 計劃化·輸出의 단일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韓國洋灰共販(株)를 설립,

출혈경쟁을 누그려 뜨리면서 19,720톤의 처녀 수출에까지 성공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1965년 操業短縮의 시련을 겪으면서 業界는 韓國洋灰共販(株)를 수출전담 기구인 韓國洋灰輸出(株)로 개편하는 등 국내 공급과잉의 돌파구를 수출증대에서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한 끝에 이 해의 시멘트 수출은 크링카 5천톤을 포함 전년의 3倍에 가까운 55천톤을 시현한다.

이 해의 시멘트생산은 161만톤을 초과하였으며 국내소비는 전년보다 28% 증가된 148만톤에 이르러 1人當소비가 처음으로 50kg수준을 넘어섰다.

1966년도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마무리짓는 해인데다 1967년의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선거를 앞둔 政府의 經濟擴大政策에 힘입어 시멘트 수요는 공급수준 이상으로 급증, 수입중단 3년만에 다시 19만톤을 수입하게 된다.

1967년에는 전년에 신설 완공된 亞細亞시멘트의 정상 가동으로 38만톤을 더 공급, 총생산은 244만톤에 달했으나 內需의 대폭적인 증대로 소비는 5만여톤의 수출을 포함 282만톤을 시현함으로써 53만여톤이나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8년에는 전년에 증설된 東洋三陟工場, 雙龍寧越工場과 know-how공사를 마친 韓一의 본격가동으로 74만톤의 生産能力이 提高된 외에 雙龍동해공장의 준공, 大韓·現代의 증설분 206만톤을 합쳐 年末生産能力이 522만톤에 달함으로써 또다시 시설과잉현상을 빚는다. 業界는 물량증대에 따른 수송난 해결을 비롯 流通構造改善·海外市場개척 등 新需要개발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해의 국내소비는 전년비 22% 증가된 337만톤으로 1人當 시멘트소비가 처음으로 100kg선을 넘어 111kg에 달함으로써 국내시멘트 소비증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69년에는 시멘트생산이 전년비 36% 증가된 486만여톤, 內需가 27% 증가된 429만톤에 이르렀다. 이 해부터 수입은 다시 중단되었으며 수출은 크링카 10여만톤을 포함 33만톤에 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출국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이 해를 전후하여 韓·中·日 등 주요 동남아국가의 시멘트業界 인사들이 잦은 교류를 갖고 수출증대방안의 공동모색, 정보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시멘트産業의 共同發展을 모색하여 온바 1974년에 창설된 亞細亞시멘트 生産國代表者會議(ACPAC)는 이때부터 그 序幕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는 新·增設공사가 끝난 星信·韓一의 153만톤이 가세돼 年産能力이 692만톤으로 提高되었다.

그러나 이 해부터 政府의 緊縮내지 安定化施策의 指向으로 시멘트消費가 鈍化되는 등 침체징후가 나타난다.

이 해 7월, 업계는 協會내에 合同洋灰管理委員會를 발족시키고 그 운영기구로 「합동양회관리소」를 설치했으나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음해 7월 解體되었다.

또 이 해 9월엔 內務部와 業界간에 農村開發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用 시멘트供給契約」을 체결, 이후 수년간 年平均 40~50만톤의 새마을用 시멘트를 공급하기도 했다.

1971년의 業界는 資金難·流通질서의 문란·輸送難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든다.

즉, 70년부터 시작된 政府의 緊縮政策持續으로 需要의 침체도가 깊어가는 가운데 販賣競爭은 激化, 극도의 혼란을 招來했다.

더우기 이 해 6월末, 換率의 대폭 引上으로 借款元利金 부담이 加重된데다 原價高마저 겹쳐 업계는 심각한 經營危機에 直面한다.

드디어 8월에는 大韓의 경영권이 元豊産業(株)로 넘어가고 9월에는 東洋이 法定管理申請을 내기에 이른다.

결국 업계는 이 해 9월, 제2차 共販機構인 韓國洋灰(株)를 設立 販賣窓口를 一元化함으로써 이 危機를 넘기고 11월에는 輸送難을 덜기 위해 史上 처음 私有機關車 8臺를 導入하기도 했다.

4. 流通·輸送

流　　通

1962～1971년중 分工場(粉碎 및 包裝공장)은 4개사·10개공장으로 늘어나 年間분쇄능력 155만톤, 포장능력 845만톤의 시설을 保有하게 됐다.

大韓이 63년 7월에 준공한 서빙고공장을 始發로 하여 雙龍이 66년 9월 大田공장·69년 5월 창동공장을, 韓一은 69년 8월 영등포공장·71년 6월 대구공장을 준공했으며 現代는 70년 8월 관악공장을 세웠으나 鐵道인입선 문제 등으로 72년 6월 運休되었다.

包裝전용공장은 雙龍이 臨海지역에만 설치한 바 68년 10월 묵호공장을 비롯, 70년까지 여수·울산·부산 등 모두 4개의 포장공장을 차례로 준공했다.

한편 大韓洋灰는 국내 최초로 65년 7월 서빙고공장내에 배처플랜트 1基(시간당 72 m^3), 믹서트럭 15臺규모의 레미콘공장을 설치하고 67년 7월 同一규모의 배처플랜트 1基를 추가했다.

大韓은 또 69년 5월 雙龍에서 건설하던 원효로레미콘공장까지 인수함으로써 73년도까지 레미콘業을 獨占하게 된다.

이처럼 시멘트 流通基地가 本工場 중심에서 주요消費地工場 중심으로 擴散됨에 따라 盛需期의 수송난 타개는 물론 유통체계 현대화의 기반도 구축하게 되었다.

輸　　送

鐵道를 중심으로한 輸送事情은 70년을 전후 극도로 惡化되어 産業線인 태백·영동선의 電鐵化 및 複線化뿐 아니라 臨海工場의 海上수송력 증대를 위해 港口의 접안능력 확대를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計劃은 70년대 중반과 80년대 初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狀況속에 업계는 船舶·트럭 등 자체 수송장비를 늘려 가면서 71년 2월에는 150만 달러를 들여 시멘트전용의 私有機關車 8臺를 도입하고 72년에는 機械工業育成資金을 지원받아 私有貨車 제작을 본격화한 바, 73년末 現在 시멘트업계가 保有한 輸送裝備는 私有기관차 25臺外에 私有화차 493輛(총용량 23,262톤), 벌크트럭 60臺(총용량 599톤), 東洋·雙龍의 船舶 15척(총용량 60,516톤), 大韓의 레미콘트럭 165臺 등이다.

이 期間중 수송수단별 輸送比重을 보면 65년엔 鐵道가 88.5%, 陸送·海送이 7.1～4.4%로 鐵道比重이 압도적이었으나 物量이 增大되면서 철도능력의 限界가 드러나 71년에는 鐵道 58.4%, 自動車 15.2%, 船舶 26.4%로 輸送原價가 높은 陸·海送比重이 크게 늘어났다.

시멘트전용 私有機關車 8대의 인계·인수식(1971. 2. 12 釜山驛)

이는 곧 시멘트업계의 輸送費 부담이 그만큼 加重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5. 시멘트 價格

需給不均衡이 되풀이되면서 시멘트價格 또한 騰落현상이 잦았으며 가격체계도 告示價格·協定價格·自由價格 등으로 수시 변경되었다.

따라서 生産者가격과 代理店가격(都賣)은 明示되어 있지만 流通過程에서의 消費者 가격은 정확히 把握할 수가 없다.

供給不足時에는 買占賣惜에 假需要까지 겹쳐 터무니 없는 暗時勢를 형성하고 供給過剩時에는 適正價格보다 훨씬 낮은 水準에서 去來가 이루어졌다.

1962년 8월 政府는 시멘트價格이 不安해지자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 시행령」에 의거, 시멘트價格을 告示價格으로 결정했다.

協會 創立직후인 63년 8·9월중에는 供給不足 끝에 散賣가격의 異例的인 暴騰이 誘發돼 配給制가 실시되는 등 이른바 3粉波動에 휩쓸렸는데 이같은 事態는 大量輸入과 함께 곧 진정된다.

64년에는 雙龍·韓一·現代의 3개신설공장이 操業을 시작하면서 從前과는 정반대의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져 時勢暴落 등 副作用을 일으키자 이 해 10월부터 시멘트가격이 告示價格에서 協定價格으로 변경되었다가 65년 4월 自由價格으로 풀어진다.

다시 品貴및 價格波動이 야기된 66년, 政府는 시멘트의 輸入을 開放했는데 當時 시멘트의 국제가격은 국내생산가격보다 낮아 輸入시멘트의 投賣가 盛行하였고 따라서 업계는 빠듯한 供給力에도 불구하고 價格面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67년의 선거熱風도 국내에 建設붐을 일으켜 시멘트 消費를 급격히 증대시킨다.

이 해에도 국내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53만여톤을 輸入에 依存하지만 업계는 輸入시멘트의 低價販賣로 流通面에서 66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68년이후부터는 新·增設공장이 稼動된데 따라 다시 供給過剩상태로 反轉, 70년엔 不況이 깊어지면서 시멘트의 生産者판매가격이 適正線인 袋當 269원을 훨씬 下廻하는 2백원선으로 떨어진다.

이같은 事態는 71년에 들면서 더욱 심화되어 170~180원선까지 暴落됐으며 급기야 共販會社인 韓國洋灰(株) 設立으로 이어진다.

이 期間중 破行的 價格에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시멘트국내가격은 항상 국내 物價上昇率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決定되었다는 點이다.

例로서 60년도를 基準으로한 65년도의 국내都賣物價指數는 221인데 比해 시멘트의 生産者販賣價格指數는 127에 머물어 시멘트價格 上昇率이 一般都賣物價上昇率보다 100%포인트가량 뒤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둘째, 需給不均衡에 관계없이 생산자 판매가격은 계속 適正價 維持가 어려웠다. 즉, 過剩生産時에는 판매競爭의 激化로 업계 스스로 價格을 떨어뜨린 反面 供給不足時에는 소비자가격의 폭등에 관계없이 生産者價格을 告示 또는 協定價格으로 묶어버린데다 輸入시멘트의 投賣로 適正價格의 維持가 곤란했던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市況이야 어떻든 계속 逆境에 부딪쳤다고 말할 수 있겠다.

V. 1972~1982

1. 概 況

제 1·2 차 經濟開發 5개년計劃期間중 量的成長에 重點을 두었던 시멘트産業은 1972~1982년에 들어 量·質을 고루 갖춘 均衡成長을 追求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量的인 面을 보면 生産能力은 1971년 692만톤에서 1982년 2,346만톤으로 3.4倍, 生産(크링카)은 664만톤에서 1,906 만톤으로 2.9倍, 輸出은 94만톤에서 562 만톤으로 6倍, 內需는 610만톤에서 1,430만톤으로 2.3倍씩 增加했다.

따라서 1981년基準 世界統計上 우리나라 시멘트生産實績은 1971년의 20位에서 12位로, 輸出은 11位에서 4位로 각각 뛰어 올랐다.

質的인 面에서의 成長도 뚜렷했다.

시멘트業界는 이 期間중 施設(키른) 改造에 219 억원, 燃料代替事業에 776 억원을 投入하는 등 生産性 提高 및 原價節減에 全力을 쏟았으며 아울러 品質管理·廢熱利用·工程의 自動化·輸送장비의 擴充·流通설비의 增大·公害防止설비의 擴大 등에도 많은 資金을 썼다.

또한 1976 년부터는 5 種시멘트(耐黃酸鹽시멘트, 大部分 輸出)를, 1982 년부터는 2 種시멘트(中庸熱 시멘트)를 생산함으로써 시멘트製品의 多樣化도 꾀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事業들은 거의가 國內 技術陣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過程에서 技術의 熟練度를 높였을 뿐 아니라 自體 技術開發에도 큰 進步를 보임으로써 生産技術의 海外進出에 큰 몫을 한다. 1982 년말 현재 海外進出現況을 보면 우리나라 시멘트會社의 直營工場 2, 合作工場 2, 餘他 國內企業의 플랜트輸出 3 등 모두 7 個 工場이 進出하고 數個工場이 計劃 또는 推進중에 있다.

한편 1974 년 7 월 우리나라 시멘트業界의 主導로 亞細亞시멘트生産國代表者會議(ACPAC)를 創設, 20 餘回의 會議를 가짐으로써 6 個 會員國 相互間의 친목도모, 輸出關係협의, 各種資料 및 情報交換 등을 통해 아시아域內 시멘트産業의 共同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

이 기간중 國內 시멘트業界는 심포지엄(11回), 熱管理세미나(6 回, 81 년이후 폐지), 品質管理事例發表會(4 回, 81 년이후 폐지), 勞使세미나(9 回), 勞動生産性調査(8 回) 등을 통해 産學協同, 學術 및 技術交流와 發展, 勞使協調, 生産性提高, 品質向上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生産施設

이 기간중 高麗와 韓國高爐 2 個社가 새로 등장, 생산에 참여하였을 뿐 기존 6 個社는 거의 모두가 增設 또는 know-how 工事를 통해 生産能力을 提高시켰다.

또한 業界모두가 原價節減과 에너지의 效率的인 활용을 위해 1979. 8~83. 4 중 燃料代替事業을 完了한바 여기에는 內資 646.4억원과 外資 1,948 만여弗, 計 776 억원이 投入되었다. 이의 附帶시설로는 石炭備蓄場외에 coal mill 28 基, 時間當 粉碎能力 총 444 톤의 石炭粉碎施設을 갖추었다.

이밖에 公害防止施設로서 E.P, bag filter 등 7 種, 총 521 臺를 具備했는데 이의 集塵能力은 총 580,664 Nm^3/min, 집진효율은 거의 100 %에 가깝다.

이같은 施設現況을 社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洋세멘트工業株式會社

東洋 三陟공장은 1971 년의 키른 3 基, 年産能力 93.5 만톤에서 2 基의 키른 증설과 施設改造, know-how 工事를 통해 키른 5 基에 年産能力 351 만톤으로 늘어났다. 東洋은 1973. 6~75. 12 중 Humboldt 키른 2 基(1·2 號)를 增設했으나 1977. 5~77. 8 중 이를 모두 最新의 NSP 키른으로 改造하여 當初 生産能力 163.2 만톤을 224.4 만톤으로 增大시켰으며 1967 년 4 월에 增設된 3 號키른 1 基를 1977. 11~78. 2 중 역시 NSP 키른으로 改造하여 47.6 만톤의 능력을 72.6 만톤으로 提高시켰다.

또한 know-how 工事를 통해 旣存키른 4 號는 22 만톤에서 27 만톤으로, 5 號는 24 만톤에서 26.7 만톤으로 늘렸다.

1·2·3 號키른의 施設改造공사에는 內資 47 억원, BOA 에서 貸付받은 外資 650 만弗 등 모두 78 억원이 投入되었다.

특히 東洋은 연료대체사업의 선두주자로서 1979. 8~1980. 9 중 內資 49 억원·外資 100 만弗, 計 55 억원을 投入, 키른 5 基의 B.C 油專燒施設을 B.C 油와 石炭의 兼用시설로 대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coal mill 4 基, 粉碎능력 60 톤/h 의 石炭粉碎시설을 具備했다.

이밖에 東洋은 7 種·112 臺, 총집진능력 160,569 Nm^3/min 의 公害防止施設을 설치했다.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

雙龍은 1971 년 297.5 만톤의 生産能力을 1982 년엔 1,151 만톤으로 무려 3.9 倍나 증대시켰다.

이 期間중 雙龍은 東海工場에 1973. 4～ 74. 3 중 年産能力 133 만톤규모의 S P 키른 1基 (3號)를 增設하고 1976.4～80.4 까지 4년에 걸쳐 同一規格의 大規模 키른 4基(4～7號)를 增設함으로써 560 만톤을 追加하는 한편 旣存키른 2基(1·2號)도 補完하여 單一工場으로선 世界最大규모인 882 만톤의 生産設備를 확보했다.

또 寧越工場은 1972 년 6 월 年産능력 127.4 만톤의 SP 키른 2基를 增設하고 기존키른 3基도 know－how 工事를 통해 74.8 만톤을84.8 만톤으로 增大시켜 212.2 만톤의 생산시설을 갖춘다.

한편 雙龍은 1975 년 1 월 大韓을 흡수 合併한 직후 聞慶工場에 대대적인 know－how 工事를 단행, 合併時의 생산능력 49.3만톤을 56.8 만톤으로 提高시켰다.

雙龍은 1980.1～81.9 중 3개工場이 보유한 키른 16基의 버너 전부를 油類專燒에서 油類·石炭兼用으로 代替하였으며 coal mill 12基를 設置한바 이의 粉碎능력은 204 톤/h이다. 雙龍의 燃料代替사업비는 內資 419 억원·外資 1,140만弗, 計 493 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附帶시설로서 雙龍은 205 (총능력 203,643 Nm^3/min) 臺의 각종 公害방지 시설을 갖추었다.

韓一시멘트工業株式會社

韓一은 1976 년 10 월 119.1 만톤 규모의NSP 키른 1基(4號)의 增設을 비롯 1980 년 10 월 1號키른의 NSP 改造, 2·3 號키른의 know－how 工事 등을 통해 總生産能力을 1971년 102 만톤에서 1982 년엔 235 만톤으로 2倍이상 증대시켰다.

1號키른의 NSP 改造공사에는 內資 26 억원·外資 556 만弗, 計 57 억원이 投入되었다.

또한 韓一은 1980.1～81.6 중 內資 13 억원·外資 82 만弗, 計 18 억원을 投入, 2號키른을 除外한 1·3·4 號키른의 연료시설을 개조한 바 이의 부대시설로는 coal mill 3基, 粉碎능력 44 톤/h 를 확보했다.

이밖에 韓一은 각종 공해방지機器 45 臺 (총능력 42,943 Nm^3/min)를 設置했다.

現代시멘트株式會社

現代는 1974 년말 年産能力 68 만톤의 SP 키른 1基를 증설하고 기존키른 2基중 2號키른을 1979 년 2 월에, 1號키른을 1981 년 2 월에 각각 NSP 키른으로 改造함으로써 1971년의 年産能力 46 만톤을 121 만톤으로 끌어 올렸다.

現代는 1·2號키른 2基의 NSP 키른 改造工事에 內資 22 억원·外資 192 만弗, 計 33 억원을 投入한바 1號工事에 內資 3 억여원·外資 75 만弗, 計 7 억원을, 2號工事에 內資 19 억원·外資 117 만弗, 計 26 억원을 각각 사용했다.

現代는 1980. 1～81.5 월중 內資 18 억원·外資 91 만弗, 計 24 억원을 投入, 키른 3基의 연료대체시설을 완료하였으며 coal mill 2基 (분쇄능력 26 톤/h)도 設置하였다.

현대의 公害방지기기는 모두 47 臺이며 總集塵能力은 46,729 Nm^3/ min 이다.

亞細亞시멘트工業株式會社

亞細亞는 1976 년 11 월 109 만톤규모의NSP 키른 1基를 增設했다가 이를 1979. 7～ 79. 8 의 know－how 공사를 통해 122 만톤으로 끌어 올렸다. 이밖에 2號키른의 NSP 改造, 1號키른의 know－how 공사로 總生産能力을 1971년의 51 만톤에서 180 만톤으로 늘렸다. 2號키른의 NSP 改造공사에는 內外資 합쳐 51 억원이 投入됐다.

亞細亞는 1980 년 3 월 연료대체사업에 착수, 같은해 8 월에 完了한바 부대시설로는 분쇄능력 60 톤/h 의 coal mill 4基를 설치했다. 이에 投入된 資金은 內資 36 억원·外資 140 만弗 計 46 억원이다.

한편 公害방지시설에 있어서 亞細亞는 시설규모가 비슷한 他社에 비해 비교적 많은 49 臺 (총능력 70,096 Nm^3/min)의 機器를 保有하고 있다. 亞細亞는 1973 년 11 월 會社 名稱을 忠北시멘트工業(株)에서 現在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星信洋灰工業株式會社

星信은 1979 년 7 월 年産능력 110 만톤 규모

의 NSP 키른 1基(3號)를 증설했으나 이를 1980 년 3 월에 改修, 9 만톤의 能力을 追加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기존 1·2號키른의 know－how 工事를 完了함으로써 102 만톤의 年産능력을 250 만톤으로 增大시켰다.

또한 1981 년 3 월 키른 3 基의 연료대체시설을 완료하고 附帶시설로 총 50 톤/h 粉碎능력의 coal mill 2 基를 설치한바 이에는 內資 82 억원·外資 400 만弗, 計 109 억원의 資金이 所要되었다.

星信은 공해방지시설로서 총집진능력 38,883 Nm^3/min 의 各種 機器 40 臺를 保有하고 있다. 星信은 1977 년 5 월 會社이름을 星信化學에서 現在의 星信洋灰工業(株)으로 변경했다.

高麗시멘트製造株式會社

高麗는 이 기간중 새로 등장한 유일의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회사이다.

1962 년 12 월에 설립된 고려는 1970 년 10 월 全南長城에 Humboldt 키른 1 基, 年産能力 68 만톤 규모의 신규 시멘트공장을 착공, 1973 년 5 월 稼動에 들어 갔다.

고려는 이처럼 出發이 늦었지만 본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58 년 10 월 당시 朝鮮大學校 설립자인 朴哲雄氏는 産學一致의 教育理念策으로 현재의 장성공장 敷地에 연산 2 만톤 규모의 시멘트시험공장을 건설, 제품까지 생산하였다. 이 試驗工場은 一切의 施設機材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실습공장에서 제작 완료했던 만큼 소규모나마 生産技術과 機械製作문제를 완전히 자체 解決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當時의 施設機材는 지금도 長城공장 구내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장성공장은 本格稼動이후 생산過程에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발생, 本來의 能力을 찾지 못하고 1978 년 KID 의 生産能力 調整시 年産능력이 본래보다 9 만톤이나 감소된 59 만톤으로 확정되었으나 그후 여러차례의 know－how 工事를 통해 시설을 補完함으로써 현재는 생산실적面에서 거의 本來性能을 되찾고 있다.

高麗의 연료대체사업은 1983 년 4 월에 완료됐는데 여기에는 外資없이 內資만 30억원이 投入되었다.

장성공장의 공해방지설비는 15 臺.

韓國高爐시멘트製造株式會社

韓國高爐 역시 이 기간중에 등장한 슬래그 시멘트 生産會社로서 1976 년 2 월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工場은 슬래그의 원활한 調達을 위해 浦項製鐵이 있는 慶北浦項에 설치했다. 1977 년 4 월에 着工한 이 工場은 1978 년 8 월 시간당 粉碎能力 65 톤규모의 시멘트 mill 1 基를 新設, 稼動한바 시멘트공장의 主工程인 크링카생산공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一種의 粉碎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장은 1980 년 6 월과 8 월에 同一규모의 시멘트 mill 2·3 號基를 각각 증설, 현재는 시간당 粉碎능력 195 톤의 시설규모를 갖추었다.

공해방지시설로서 Multiclone 1 臺(총능력 800 Nm^3/min)와 bag filter 7 臺(총능력 3,600 Nm^3/min)를 保有하고 있다.

株式會社 유니온

국내 唯一의 白시멘트 産業업체인 유니온은 1971 년 8 월 富川공장에 同一규모의 키른 2 號基를 증설, 年間생산능력을 3 만톤으로 倍加하였다. 이어 1979 년 1 월 1 號키른을 NSP로 改造하고 계속적인 know－how 공사를 통해 1981 년에는 施設용량을 5 만톤까지 擴大했으나 1982 년 1 월 淸州공장을 신설, 稼動하면서 그해 4 월 기존 富川공장을 전면 폐쇄시켰다.

富川공장의 폐쇄는 富川市의 擴張으로 공장 주변이 都市化된데 따른 조치이다.

年産能力 10만톤규모의 淸州공장은 內資 85 억원·外資 560 만弗 합쳐 124 억원의 자금으로 세워졌는데 Smidth SP 키른 1 基를 보유하고 있으며 公害방지시설로서 12 臺의 機器를 設置했다. 燃料는 質과 관련된 白色度 때문에 전적으로 B.C 油만을 사용한다.

한편 유니온은 1976 년 4 월 漢星煙炭(株) 와 合併한후 1977 년 7 월 會社名稱을 유니온白洋灰工業(株)에서 현재의 (株) 유니온으로 變更하였다.

3. 시멘트 需給

1975년 3월 第2次 共販회사인 韓國洋灰가 解散될 때까지의 70년대 前半部는 시멘트 需給面에서 비교적 安定된 시기였다.

生産은 1971년의 687만톤에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지속, 1975년에 처음으로 1,000만톤대를 넘었으며, 국내소비 역시 生産과 같은 趨勢로 1971년 610만톤에서 서서히 늘기 시작해 生産보다 2년 늦은 1977년에 1,000만톤대를 돌파한 1,112만톤을 示顯했다. 輸出은 1972년에 100만톤선을 넘으면서 加速化, 1975년에는 크링카 72만톤을 포함하여 244만톤으로 올라섰다. 수출기반이 확립되기까지에는 1974년 ACPAC 創設을 전후한 市場의 多邊化, 産油國에의 政策的·戰略的 輸出촉진, 販賣창구를 일원화한 韓國洋灰의 조정역할도 큰 몫을 했다.

1972~75년동안 생산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 需給이 비교적 均衡을 이룬다. 그러나 經營面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71년 5월, 1972년 6월, 1974년 12월에 되풀이된 換率引上은 借款원리금 상환부담을 加重시키고 1973년 12월과 1974년 2월 및 4월의 3次에 걸친 油價衝擊은 原價高를 부채질 했으며 8·3措置로 불리는 1972년의 私債凍結令, 1974년 8월의 財閥企業공개촉진 등은 직접·간접으로 시멘트業界에 큰 資金압박을 加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1975년말부터 시멘트業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 76년초부터는 景氣沈滯현상이 더욱 깊어져 業界는 韓國洋灰를 解體한지 15個月만인 1976년 7월 輸出보상과 不況克服을 위한 3次 共販格인 瑞韓實業(株)을 設立한다. 瑞韓實業은 1975년 11월 소위「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案」이 議決된 후 첫번째로 탄생된 共販회사라는 점에서 당시 政·財界로부터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이 法으로 말미암아 瑞韓實業은 時限附會社로서 命脈을 이어가게 된다.

景氣는 1977년 가을 盛需期부터 徐徐히 풀려 전체 需給面에는 큰 問題가 없었으나 物動量 增大에 따른 輸送難으로 일부 지역에 品貴현상이 야기됨으로써 이 해 9월에는 부분적이나마 輸出에 制動이 걸리기도 했다.

이 해의 시멘트 生産은 1,440만톤, 內需 1,110만톤, 輸出 400만톤, 在庫는 시멘트와 크링카를 합쳐 71만톤이었다.

이어 1978년 들어 建築경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景氣가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시멘트 消費가 급격히 증가. 輸入이 전면 중단된지 近 10년만에 27만톤의 수입이 再開됐는데 이 해의 內需 시멘트는 前年比 33% 暴增된 1,480만톤에 달한다. 이때의 시멘트 波動은 輸送手段의 不備, 備蓄施設 未備, 物量品貴에 편승한 악덕판매업자의 買占賣惜, 假需要 등에 기인된 것으로 이 해의 供給능력이 1,630만톤, 操業率 89%, 시멘트와 크링카를 합친 在庫가 62만톤이었다는 점만 보아도 이같은 需給不均衡 현상이 非정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輸出은 이 해 3월부터 9월까지 全面 중단됨으로써 前年의 400만톤에서 그 切半수준에도 못미치는 180만톤에 머물고 말았으며 전격·획일적인 輸出中斷은 旣存市場을 喪失케 함으로써 이제 막 本軌道에 오른 시멘트 輸出의 앞날에 큰 障碍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景氣過熱현상은 1979년 中盤까지 계속 되었으나 建築規制 등 政府의 잇따른 진정대책 실시로 後盤부터는 오히려 침체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9년에는 국내 시멘트消費가 1,580만톤으로 前年比 6% 增加에 머물고 輸出은 210만톤, 在庫는 전년보다 2倍나 增加된 128만톤에 달함으로써 시멘트業界 長期沈滯의 序幕이 오른다. 더우기 生産규모는 이 해 3월 雙龍 東海공장의 大單位 增設공사 1단계 사업이 完了됨에 따라 280만톤이 增加된데다 같은 시기에 增設공사가 끝난 星信의 110만톤까지 겹쳐 2,000여만톤으로 늘어났다.

한편 瑞韓實業은 設立후 해가 바뀐 1977년에도 業界의 不況이 계속되어 1년기한으로 1次 연장되었으나 이 해말부터 1979년 초반까지 시멘트경기가 上昇기류을 타게되자 産業合理化 및 輸送·需給조절을 통한 消費者 保護策에 의

해 實需要者에 대한 直販까지 實施해 가면서 存續時限이 延長된다.

1980년 이후의 景氣는 國際經濟여건악화, 3~4次에 걸친 石油類가격의 대폭적인 引上, 계속된 金利와 換率인상 및 換率의 유동화, 이밖에 10·26사태, 光州사태 등 政治·社會·經濟的으로 충격적인 事件들이 꼬리를 물면서 깊은 不況의 늪에 빠져 198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간 景氣豫告指標가 史上 최악의 0.4에 머물기도 했다.

이 時期의 國內시멘트 消費는 1979년의 1,580만톤을 피크로 1980년에 1,320만톤, 1981년에 1,240만톤까지 계속 減少하다가 1982년 후반부터 다시 늘어나 이 해에는 1,430만톤에 이르렀으나 이 역시 1979년 실적에는 150여만톤이나 모자란 것이다.

輸出은 시멘트와 크링카를 합쳐 1980년 435만톤을 기록, 3년만에 4백만톤대를 회복했으며 1981년에는 시멘트輸出史上 最高기록인 576만톤을 시현했으나 다음해 562만톤으로 다시 줄어든다.

특히 이 3개년동안의 輸出은 채산성면에서 國際時勢 暴落으로 생산原價를 밑도는 出血輸出이었으나 기존의 海外市場 維持와 內需不振을 輸出增大로 메꾸려는 業界의 집념으로 이뤄진 所産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시멘트와 크링카를 합친 在庫는 1980년 170만톤, 1981년 109만톤, 1982년 131만톤으로 적정수준을 크게 넘고 있는 바 이 정도의 在庫수준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不要不急한 補修나 操業短縮을 통해 工場稼動率을 아주 낮은 線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며 當時 內陸공장 중에는 가동률이 20%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한편 이와같은 역경속에서도 雙龍은 東海工場 增設 2단계 事業을 1980년 4월 완료함으로써 年間 280만톤이 追加돼 業界의 年間 生産能力은 모두 2,346만톤으로 增大되었다.

시멘트業界가 1980년 이후의 長期不況을 무난히 극복하게 된 것은 燃料代替, 工程의 自動化 등 原價節減과 經營合理化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며 1983년 5월에 解體된 瑞韓實業의 機能이 奏效했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期間중 需要측면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高速道路의 시멘트콘크리트鋪裝이다.

1978년 着工, 1981년에 施工된 釜山-馬山間 高速道路는 비록 表層에 5cm 두께의 아스팔트를 입힌 補完시멘트콘크리트 道路이지만 완벽한 시멘트鋪裝의 可能性을 確信시켜 주었으며 이에 힘입어 88올림픽 高速道路(大邱-光州間)가 國內 最初로 完全한 시멘트콘크리트鋪裝을 성공적으로 施工중인 바 새로운 시멘트需要開發이라는 點에서 큰 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

4. 流通·輸送

이 期間중 시멘트의 流通·輸送부문은 刮目할만한 進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工場의 偏重所在, 鐵道, 道路, 港灣을 비롯한 輸送網의 未備 등으로 補完·擴大되어야 할 問題들이 그대로 山積돼 있다.

이 期間엔 1973~74년 中央線의 電鐵化, 1975년 嶺東·東海高速道路 개통, 三陟港의 接岸能力 확대(5,000톤), 1980년 北坪港개발 및 시멘트專用부두 건설 등 社會間接施設도 상당히 補強됐으나 시멘트의 輸送難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代案 또는 便法으로 消費地 流通基地를 대폭 늘리고 各種 輸送수단을 業界 스스로 확보해 온 바,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流通施設

1973년까지의 시멘트 流通施設은 粉碎工場 6개, 包裝工場 4개 등 分工場 10개와 레미콘工場 6개, 그리고 몇군데의 驛頭 荷置場이 전부였다.

이후 生産과 消費규모가 增大, 輸送難이 극심해지면서 全國的으로 상당수의 消費地중심 流通基地가 설치되었는바, 1982년末현재 稼動 또는 사용중인 것만도 粉碎工場 8개, 包裝工場 11개, 레미콘工場 23개, 流通 Silo 도 9개소에 달한다.

流通 Silo 중 2개는 5種 시멘트 專用이며

1983 년중 竣工 또는 새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레미콘工場도 7～8개에 이른다.

이밖에 全國 주요驛頭 55개소의 시멘트荷置場 外에 鐵道가 없는 內陸에도 18개소의 陸送 전용荷置場이 설치돼 있다.

輸 送 裝 備

이 期間중 수송장비는 鐵道와 船舶이 能力의 限界에 부딪쳐 伸張에 큰 制限을 받은 反面 自動車 臺數는 12.8 倍나 激增돼 陸送의 擴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증가되는 物動量의 追加分을 輸送費用이 가장 높은 自動車에 依存, 業界의 流通경비부담이 계속 加重되었음을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다.

輸送手段別 裝備現況은 貨車類가 1973 년 총 493 輛(容量 23,262 톤)에서 1982 년末 702 輛(33,070 톤)으로, 自動車는 60 臺(599 톤) 에서 765 臺(9,471 톤)로, 船舶은 15 隻(60,516 톤) 에서 17 隻(64,321 톤)으로, 레미콘트럭은 165 臺(577.5 m^3)에서 1,007 臺(5,615 m^3) 로 각각 增大됐다. 특히 自動車는 동 기간중 그 種類에 있어서도 當初의 벌크트럭 1 種에서 카고트럭, 트레일러, 벌크트럭, 벌크트레일러 등 4 種으로 늘었다. 레미콘트럭의 숫자에는 星信洋灰 방계기업인 振盛레미콘(株)의 것과 業界이외의 것이 除外되어 있다.

陸送裝備중 15 톤규모의 cago 트럭 210 臺와 10 톤크기의 trailer 210 臺는 輸送難이 극심했던 1978 년중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과 外貨貸付에 의해 日本으로부터 一括 導入된 것이다.

業界의 輸送裝備확충 노력은 手段別 수송실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71 년의 手段別 수송실적 구성비는 鐵道 58.4 %, 陸送 15.2 %, 海送 26.4 %로 鐵道輸送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82 년의 그것은 각각 38.1 %, 18.8 %, 42.7 %로 海送과 陸送比重이 크게 높아진 반면 鐵道수송 비중은 상대적으로 1971년에 비해 20 %포인트나 낮아졌다.

또한 이 기간중 벌크裝備가 增大된데 따라 國內의 벌크比率도 1971 의 4 %에서 1982년에는 32 %로 提高되었으나 日本의 90 %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준다.

5 . 시멘트 價格

이 기간에도 시멘트 價格은 原價要素의 잦은 變動 및 物價施策의 變數에 따라 큰 起伏을 보인다. 1971년까지 袋當 269원이던 生産者판매가격이 1982년에는 附加價値稅를 包含 1,927 원으로 大幅上向調整된바 이를 段階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 년 2월 袋當 生産者판매가격 269 원이 될때까지의 시멘트價格은 餘他 物價上昇率에 비해 크게 뒤져 왔음을 1962～1971 년 부분에서 이미 說明한바 있는데 이 가격은 1972년 2월에야 비로서 320 원으로 19% 引上되었다. 그러나 1973 년 1월 袋當규격을 40 kg 으로 下向조정하면서 305 원으로 引下되었으며 1 個月뒤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호응, 다시 3.28 % 引下된 293 원으로 내렸다.

1974 년 2월 政府는 73년末의 石油類가격 30 % 引上과 그간의 시멘트 價格構造의 不合理性을 감안, 시멘트의 袋當 生産者판매가격을 293 원에서 396 원으로 35 % 引上허용하면서 自由價格이었던 시멘트를 最高價格制로 묶는다. 이 직후 石油類가격이 다시 82 %나 大幅引上되자 시멘트價格도 그해 4월 425 원, 11월 470 원, 1975 년 1월 575 원, 같은해 3월 660 원으로 각각 分散引上된바 이는 物價上昇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1974년 시멘트의 最高價格制度가 폐지되고 1976년 3월부터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이 施行되면서 시멘트는 다시 獨寡占品目으로 指定된다.

이로부터 시멘트價格은 政府의 엄중한 原價檢討 및 物價施策에 따라 調節돼 온바, 제 2 의 油類波動 등을 거치면서 1981년 12월 1,927 원으로 책정돼 現在에 이른다.

이 期間중 代理店(都賣)가격은 당국의 行政指導등을 통해 調整돼 오다가 시멘트가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申告價格制로 바뀌었는데 1980 년이후는 長期不況의 여파로 代理店間의 販賣競爭이 일어 제 값(2,045 원)을 못 받고 있다. ♣♣